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네덜란드계 보험사 AEGON, 구제금융 30억 유로 수혈

□ 네덜란드계 보험사인 Aegon은 자본 부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증가하면서 주
식가격이 지난해 대비 25% 수준에 머물게 되자 10월 28일 네덜란드 정부로부터
30억 유로(37억 달러)의 구제 금융을 지원받기로 결정하는 한편 3/4분기 잠정 실
적도 함께 발표함.

- Aegon 구제금융 지원의 시점은 베네룩스 3국 최대 대부업체인 KBC에 벨기에
정부가 35억 유로의 자금 수혈을 공급한 바로 다음 날이며, 네덜란드 정부가
ING 은행보험그룹에 100억 유로의 자본을 보강한 일주일 후에 해당
- 3/4분기 들어 Aegon은 ①주식, 채권에 대한 투자손실, ②부실 주택담보대출 관
련 손실 및 ③Lehman Brothers와 Washington Mutual의 도산에 따른 손실이 3
억5천만 유로에 달해 당기순이익(세전기준)이 5억 유로에 머물렀다고 발표함.
- 한편, 3/4분기 말 현재 주식총액은 위험준비금을 포함하여 94억 유로에 해당되
는데 위험준비금의 재평가로 25억 유로의 손실을 입음.
- S&P AA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Aegon은 요구 자본을 초과하여 2/4분기에 8억4
천2백만 유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3/4분기 들어 5억 4천2백만 유로가 감소한 3
억 유로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.

□ Aegon은 최대지주인 Association Aegon에게 1주식을 4 유로에 평가하여 250만
주를 매각하고 다시 Association Aegon은 ING와 네덜란드 정부의 거래와 유사한
조건으로 구제금융 거래를 매듭지음으로써 Aegon의 core 자본을 강화함.

- Aegon 이사회는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2008년 배당금 지급을 철회하고 주
식이나 현금 형태의 보너스를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, 네덜란드 정부는 이사회의
2석을 지명할 권리를 갖기로 함.
- 네덜란드 정부는 투표권이 없고, 거래될 수 없으며, 보통주화 할 수 없는 주식을
1 주식 당 4 유로에 250만 주를 인수하되, 연평균 8.5% 이상의 이자를 받거나
보통주 배당의 110%(2008년), 120%(2009년), 125%(2010년)를 보장받기로 결
정함.
 - 단, 이자는 복리계산을 하지 않으며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.

- Aegon의 buy-back 조건은 일주일 전의 ING보다 좋은 조건으로서 1차년도인 2009년 10월 10일까지 주식을 정부로부터 구매할 경우 1 주식 당 가격은 4~4.52 유로로 평가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는 매입가격의 1.5배에 해당하는 6 유로로 결정함.
- 한편, Aeogon CEO는 이번의 자본 강화는 유사시에 대한 버퍼의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향후 비즈니스 파트너, 대리점과 설계사들,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Aegon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것이라고 언급하는 가운데 28일의 주가는 전일 대비 1.8% 증가한 3.44 유로를 기록하여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보임.

(Financial Times 10/28,
Financial Times 10/29,
Aegon 보도자료 10/28)